

탄소기업 30곳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탄소융합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5억원 투입 생활밀착형 제품화 지원 등 나서기로

탄소산업을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키워온 전주시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탄소복합소재 기업의 시제품제작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탄소산업 기술·마케팅 글로벌화를 위한 토탈 기업지원 사업(이하 탄소산업 토탈 기업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올해 국비 2억 78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해 전북 지역 탄소복합재 기업의 기술·사업

화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탄소산업 토탈 기업지원사업'은 탄소관련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기업지원 형태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한 패키지 지원 형태로 변경해 단기간 성과창출과 사업화가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생활밀착형 탄소제품화 지원 △에너지기술 및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R&D후속 사업화 지원 △

전시회지원 △온라인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원은 이달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5월 초 탄소산업 토탈 기업지원사업 신청공고를 내고 참여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가진 참여기업들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탄소제품 등 유망제품을 개발해 신제품 매출액 5억원, 해외수출 10억원 달성 등 매출신장을 이뤘고, 1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업 맞춤형 토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탄소관련 중소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해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산업 토탈 기업지원사업 신청공고는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매창테마관 현판식

부안군은 문화가 있는 삼 실현과 지역문화 향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성한 매창테마관 현판식을 10일 매창공원에서 지역문화인 및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복지·환경 10건, 건설·교통 11건 등 40건 공개

전북도는 10일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4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정책들로, 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여 나갈 것이다.

도는 2013년부터 159건의 정책실명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공개해 왔다.

올해 부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가 변경되어 도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사업별로 종합 기록 관리하게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지사 공약사

업과 각종 도정현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로 복지·환경 분야 10건, 건설·교통 분야 11건, 농축수산물 분야 6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5건, 경제·산업 분야 4건, 기타 분야 4건이다.

선정기준별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사업 13건,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14건,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6건, 국민신청제 4건, 기타 3건 등 총 40건이 선정됐다.

특히,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되어 도민들로부터 공개요청 대상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도화포장 사업' 등 6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중 4개의 사업이 이날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선정되어 도민이 실제 원하는 정책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김진성 기자

“직장 내 갑질 철폐하자”

전북직장갑질119 근로감독 요청

최저임금 위반 등 직장 내 갑질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직장갑질119는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공공기관 구내 식당 조리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제보가 있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내 한 구내식당 노동자가 하루 9시간 근무했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44만원(실지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날 전주고용노동부를 찾아 해당 사례를 고발하고 제보 받은 사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갑질 개선을 위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다. /뉴스시스



약수하는 한-슬로바키아 양국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 철저히 조사해 응분조치 취할 것”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기관차원 임직원 전반에 단호 조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이 사태를 직인 개인 실수로 돌리려 안된다”며 “가능한 빠른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보고 받으면서도 이 정도였나 굉장히 충격받았다”며 “전날 이뤄진 결재 과정 중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아무도 스크린하지 않았다는 점,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산상으로 스크린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시스템 상 문제에 대

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 문제는 조사결과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 여부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조

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최종적으로 확인된 다음 이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든 책임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서든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호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초중등 인사불균형 심각”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2017년 전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954개교, 중학교는 342개교로 나타났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학생 수는 유·초등이 12만4,282명, 중고등학교가 12만7,374명으로, 학교 수로는 유·초등학교가 월등하게 많고, 학생 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유 후보는 “현 교육감 체제 들어, 진영과 코드에 따라 인사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탐장급 이상의 교직원은 유·초등과 중등이 서로 비슷하게 임용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전북교육청의 인사 불균형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현재의 도교육청 탐장급 이상의 2직을 보면, 과장 이상은 초등 2명, 중등 4명으로 2배의 차이가 있다.”며 “탐장급은 유·초등 9명, 중등 11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초등이 11명, 중등이 15명으로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탕정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기자



“기초교육지원센터 설립할 것”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도내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 6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형 학력향상 선도학교 및 일반교 역량강화 우수학교를 발굴해 전북의 모델학교를 키워나가겠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지역 및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교육지원센터 설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기초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육정보교육원재구조화, 학력향상에 관한 학생들과 학부모 상담지원 배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며 “체계적인 기초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 1멘토제’를 통해 교사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교과별 PBL 학생주도성 기초 학습과정 설계 및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젝트를 방과후 학습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학생 학력향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완주 통합 이뤄낼 것”

염운상 전주시장 예비후보

염운상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염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완주 통합으로 광역시가 될 경우 다른 시도와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전주·완주 통합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면서 “전주도, 완주도, 살기위해선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염 예비후보는 “30년 안에 전국 226개 시·군 중 79곳이 사람과 돈이 없어서 사라진다는 내용이 발표했다”며 “전주와 완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같이 살기 위해선 꼭 통합을 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과 절박함을 시민들과 완주군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발굴 약속

송하진 도지사,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교통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각 지역 녹색어머니회장 등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녹색어머니회는 8간 활동상황 설명하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항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북도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건의했다.

송 지사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매일 등하교길 안전한 통학로 교통지도로 인해 최근 5년간 전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회장과 각 지역 녹색어머니회장 등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녹색어머니회는 8간 활동상황 설명하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항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북도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건의했다.

송 지사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